

울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3고단3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흥기등협박),
존속상해, 존속폭행, 재물손괴

피 고 인 A

검 사 강세현(기소), 김미선(공판)

변 호 인 변호사 이창림(국선)

판 결 선 고 2013. 11. 14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피해자 B(남, 79세)의 친손자로 피해자와 직계 존·비속 관계에 있다.

1. 2013. 4. 25.자 범행

피고인은 2013. 4. 25. 11:00경 경남 양산시 하북면 신평5길 0000000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'800만 원을 달라'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선 전화기 2대

를 주먹으로 내려쳐 파손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, 직계 존속인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폭행하고, 위험한 물건인 농약(제초제)을 가지고 들어와 병뚜껑을 열어 그릇 2개에 부으려고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'할아버지와 내캉 죽자'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농약을 마시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.

2. 2013. 5. 1.자 범행

피고인은 2013. 5. 1. 16: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'왜 돈을 안주나 빨리 600만 원 가져와'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'돈이 없다'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나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,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.

3. 2013. 6. 7.자 범행

피고인은 2013. 6. 7. 14: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베란다에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,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

1. 상해진단서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
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, 제2조 제1항 제2호, 형법 제283조 제2

항(흥기 휴대 존속협박의 점), 형법 제257조 제2항, 제1항(존속상해의 점), 제266조 제2항, 제1항(존속폭행의 점), 제366조(재물손괴의 점), 각 징역형 선택

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1. 작량감경

형법 제53조, 제55조 제1항 제3호(초범인 점,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)

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(위와 같은 정상 참작)

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오동운 _____